

영광군,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



영광군이 '내 고장,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 일환으로 관내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편의 제공을 통해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늘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관·기업체 등 방문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 실거주자 전입신고 편의통해 인구늘리기 동참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는 관내 기관,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바쁜 일상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내 전입신고가 어려운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전입 혜택을 안내하고 주소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지난 2월 25일에는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3월 4일에는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를 방문하여 결혼·출산, 청년, 일자리 분야 등 영광군의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안내하고, 관내 기관 및 기업 임직원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내 직장 주소찾기'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을 중점 홍보하였다. 아울러,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속 직원들이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주소이전을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내 직장 주소찾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늘리기에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소비자선정 최고 브랜드 '귀농귀촌 선도도시' 부문 선정

함평군은 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진행된 2021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 선도도시 부문'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가 주최 및 주관하는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산업(단체) 부문별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자리로,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발굴·추진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침포 빈집 재생사업,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군은 2020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귀농산어촌의 중심지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의 군수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수상을 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이달 9일 개원 예정인 '함평군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등 귀농귀촌분야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예비 귀농인에게 최적의 귀농귀촌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거리 전봇대 뽑고 전기줄 땅 속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등 4개 구간 2.15km 전선 지중화 추진
목포시는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거리 일대의 도보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최근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사업(이하 지중화사업)을 착공했다. 시는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만호동과 유달동을 관통하는 원도심 번화로를 중심으로 4개 구간, 2.15km를 대상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중화사업은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목포시는 한국전력·통신사와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등록된 만호, 유달동 지역은 한전주, 통신주

등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천후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중화사업이 원도심 경관 개선, 안전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도보관광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불편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1897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무안군,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 임시 개관

몽탄 남초등학교 리모델링 정식개관 다음달 1일 예정

무안군은 5일부터 몽탄면에 위치한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를 임시 개관한다고 밝혔다.

전통생활문화 테마파크는 몽탄면 청용리 401번지 일대 3만5천여㎡(구) 몽탄 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기획전시실, 근현대 생활문화 체험관, 수장고, 야외유물전시관 등을 조성한 공간이다.

기획전시실과 수장고는 해제면 윤근백 씨로부터 기증받은 832종 3,000점 이상의 유물과 구입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으며, 관광객들은 가지각색의 유물을 관람하고 검색할 수 있다.



근현대 생활문화 체험관은 1960~70년대의 생활을 6가지 테마의 디오라마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당시 학교, 일상, 장날 등의 생활을 책장을 넘기듯 빨리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재현한 공간이다. 임시개관 중 입장료는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정식 개관은 4월 1일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99대·전기소형화물차 29대 지원

영암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99대, 전기소형화물차 29대로 승용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640만원, 소형화물차는 2,4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열람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연속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의 불편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중화사업과 연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1897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안해읍 가란도 새들마을(돌담쌓기)

신안군, '새들마을 공모사업' 2개소 선정

신안군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균형위/농림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들마을)에 공모하여 비금면 수지도와 하의면 옥도 2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총 38억원(국비 75%, 도비 9%)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수지도와 옥도는 뱃길로만 연결되는 섬마을로 열악한 교통여건과 강한 해풍으로 기반시설 등이 노후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앞으로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

비, 폐교 리모델링, 안전가드레일, 응벽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과 담장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자연정화 하수처리장, 마을숲 조성 등 마을의 생활·위생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로써 신안군의 새들마을은 현재 추진중인 압해읍 가란도, 증도면 병풍도 등과 함께 6개소에 이른다. 박우량 군수는 "섬으로 이루어진 취약한 낙도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